Analyst: Yuanta Research (베트남)
+84 28 3622 6868 / research@yuanta.com
번역: Yuanta Research (한국)

VN지수 연초 반등 이후 숨고르기, 대형주 주도권 교체와 외국인 수급 부담

1월 VN 지수는 전월 대비 2.5% 상승(미 달러 기준 4.0% 상승)하며 아시아 대부분 국가보다 부진했다. 1월 중순 며칠간 메인보드는 당사의 연간 지수 목표치를 일시적으로 상회했지만 이를 지속하지 못하고, 하노이에서 개최된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전후로 1,800pt 선으로 하락했다. 인도네시아(-4%)는 베트남보다 부진했는데 이는 글로벌 지수 승격을 추진 중인 베트남 정책 당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 우려를 낳고 있다.

1월 3대 거래 플랫폼에서 일평균거래대금 US$15억 기록해 지난 2년간 양력 설과 음력 설 사이의 공백기로 시장이 수주간 소강 국면에 머물렀을 때에 비해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.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이며,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일주일간 시장이 휴장기에 들어갈 것이다.

외국인투자자 순매도가 재개됐다. 1월 외국인투자자들은 US$2.56억을 순매도해 12월의 순유입에서 반전된 모습이나, 연간 US$52억의 순유출을 보인 2025년 전체 추세에는 부합했다. 매도세 지속은 우려 요인이긴 하지만 흥미롭게도 외국인 매수세 또한 대거 유입되고 있다. 2025년 전체 외국인 거래대금은(매수, 매도) US$580억에 달해 전년대비 57% 증가하고,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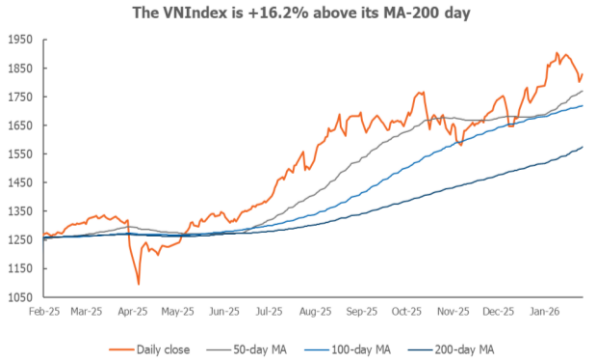
Resolution 78(국유기업을 경제의 핵심 주체로 육성) 이후 대형주 주도권 교체됐다. 이에 따라 유통주식 비중이 낮은 국유 산업주들이 수혜를 입었으며, PV 가스(전월대비 +62%), 베트남고무그룹(+52%), 비나밀크(+15%)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. 또한 '빅3' 은행주인 베트남개발은행(+39%), 베트남산업은행(+9%), 베트남무역은행(+23%) 역시 강세를 보였다. 반면, 2025년 시장을 주도했던 기존 대형주들은 조정을 받았는데, 특히 빈그룹은 2025년에 8배 급등한 이후 1월에 17% 하락했다. 이 외에도 빈홈스(-15%), 빈콤리테일(-10%), 비엣젯항공(-18%)이 부진했다. 이는 지난달 리포트에서 극심한 쏠림현상에 대한 당사의 경고가 현실화됐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다. 다만 이러한 흐름은 강세장이 보다 건강하게 저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, 우리는 이 상승장이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. 1월 VN30지수는 상승 21개 종목, 하락 9개 종목으로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이었으나, VN 지수 전체적으로는 상승 206종목, 하락 184종목으로 거의 중립적인 수준이었다.

주: 발간일 2026.02.0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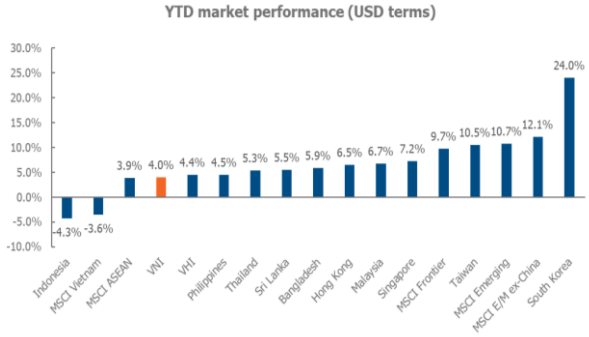
YUANTA

베트남 시황

VN지수 1,900pt 상회 흐름 유지실패, 1월에 전월대비 4% 상승에 그치며 아시아 대부분 증시대비 부진



자료: Bloomberg, Yuanta Vietnam (1월 30일)



자료: Bloomberg, Yuanta Vietnam (1월 30일)

향후 1개월 VN 지수 예상범위 : 1,815-1,845pt